

◇국소마취에 의한 다한증 환자의 치료

이성수, 윤용한, 이두연, 류송현, 김도형

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호흡기센터, 흉부외과

배경 및 목적 : 다한증은 젊은 나이에 0.6%에서 1%까지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 흉강 내시경 기구의 발전으로 2 mm 내시경에 의한 다한증 치료가 가능하게 되어 국소마취하에서도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.

방법 :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동세브란스병원 흉부외과에서는 1998년 4월부터 1998년 7월까지 17례의 다한증 환자에서 2 mm 흉강경을 이용한 17례의 흉부교감 신경절 절단술[sympathicotomy]을 시행하였다.

결과 : 모든 환자에서 추적 가능하였으며 평균입원기간은 1일이었다. 수술후 보상성 다한증은 17례[100%]에서 나타났으며 생활에 불편한 정도의 보상성 다한증은 5례[29.5%]였다. 보상성 다한증의 발생율은 일반적인 수술방법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수술의 만족도는 70.5%에서 만족한다고 하였으며 29.5%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였다.

결론 : 국소마취하에서 2 mm 흉강경을 이용한 T2 흉부교감 신경절 절단술[sympathicotomy]은 다한증의 치료를 위한 치료방법으로 전신마취에 두려움이 있는 경우에서 매우 간편하고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라 생각되어지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과적인 수술방법으로 사료된다.

책임저자:윤용한(연세대학교) 발표자:이성수(연세대학교)